

관광축제 방문자의 지출행동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거주지를 중심으로

International Comparisons on the Expenditure Behaviors
of Tourism Festival Visitors

고 동 우**
Ko, Dong-Woo

ABSTRACT

This study compared the differences in the expenditure patterns of tourism festival visitors depending on the residency of subjects. Five indexes and dependent variables, which reflect expenditure behaviors involved in budgets, were developed. Hypotheses, i.e., remote travel visitors, including foreigners, have greater expenditure than local visitors, were formulated. A total of 520 samples were surveyed from two planned festival sites in Korea: the Andong Mask Dance Festival and Chuncheon International Mime Festival. Results revealed that the influence patterns of travel distance on the expenditure indexes could be moderated by the different festival type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핵심용어 : 기획축제, 지출행동, 지출액, 지출비율, 축제체험 등.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2-003-B00391)

** 대구대학교 관광학부 전임강사. 여가 및 관광 심리학 전공.
e-mail: dwko@webmail.daegu.ac.kr

I. 서론

기획 관광축제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 최근 들어 연구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의 지역축제 효과를 연구하는 것은 기획축제의 궁극적인 성과를 진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획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말하기 위해서는 축제 방문자의 지출행동을 이해하여야 한다. 방문자의 지출행동이 없다면 축제의 경제적 성과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미시적 수준에서 축제 방문자의 지출행동을 탐색하고 있다(고동우, 2003; 고동우·부소영, 2001; 김정은·김남조, 2000; 이희찬 2002; Agarwal & Yochum, 1999; Henthorne, 2000; Leones et al., 1998; Long & Perdue, 1990; Mok & Iverson,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축제를 포함하여 관광소비자의 지출규모와 행동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실태조사 수준을 머무르고 있으며, 지출 행동의 기제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 경우는 드문 편이다. 다만 몇몇 연구들이 방문자의 지출 행동에 대한 이론적 기제를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고동우·부소영, 2001; Leones, et al., 1998; Long & Perdue, 1990). 그렇다고 해서 이들 연구들이 가정하였던 지출행동의 기제를 경험적으로(empirically) 지지하는 결과를 얻은 것은 아니다. 예컨대, 지출행동의 선행변수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은 주장과 경험적 결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주지나 여행거리와 같은 변수들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 왔다. 지역주민과 타지역 출신 방문자를 비교하여 지출규모와 패턴의 차이를 보는 것은 일반적인 연구 모형이 된다.

거주지 혹은 여행거리가 지니는 지출효과의 문제는 관광기획 축제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연구 주제를 제공한다. 특히 국제 관광을 지향하는 측면에서 축제를 기획하였다면, 여행거리가 더 멀고 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인 방문자의 지출행동을 내국인이나 지역주민의 그것과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 축제를 대상으로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외국인의 지출 행동을 다루거나 국제적으로 비교한 경우는 고동우(2003)의 연구를 제외하면 거의 없었다.

여러 기획 축제가 지역주민이나 내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국제적인 관광축제를 표방한다면 외국인 방문자의 지출 행동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축제의 구조적 특징에 따라 지출행동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고동우·부소영, 2001), 서로 다른 성격의 축제를 대상으로 지출행동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관광기획 축제를 방문한 외국인과 내국인 관람자를 대상으로 지출행동을 비교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서로 다른 축제를 대상으로 지출행동의 패턴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관광축제 지출행동의 선행변수들

기획 축제를 포함한 관광 현장의 지출 행동에 대한 연구들은 대개 탐색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방문자의 지출행동에 대한 연구는 주제 면에서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지출액과 지출 목록 등 지출 결과를 기술적 수준에서 보고하고자 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탐색적 수준에서 지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를 알아보는 경우이다. 전자보다는 후자의 경우가 지출행동의 기제를 다루는 보다 이론적인 공헌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행동의 기제를 다루는 연구들조차 잠재적인 선행 변수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인데 몇몇 예외의 연구들이 있을 뿐이다(고동우,

2003; 고동우·부소영, 2001; Gitelson & Crompton, 1984; Godbey & Graefe, 1991; Long & Perdue, 1990; Leones, et al., 1998).

지출행동의 결정인자로서 인구통계적 변수, 사회통계적 변수 그리고 심리적 변수들에 대하여 기존 연구들은 주목하여 왔다. 인구 통계적 변수에는 성별, 나이, 결혼유무 등이 포함되며, 소득수준, 여행거리 혹은 거주지, 동반자 특성 등은 지출행동을 결정하는 사회 통계적 변수로 간주된다. 그리고 축제 방문동기, 체험 수준 등은 심리적 변수들이다. 이들 여러 변수의 지출 효과는 일관적이지 못하여 연구자들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동우·부소영, 2001). 특히 이들 변수들의 지출효과에 대한 이론적 근거 역시 알려져 있지 않으며, 대부분은 실태조사 수준의 탐색적인 기술 연구에 머무르고 있다.

심지어 선행 변수들의 지출효과에 대한 기제적 측면을 제시하였던 연구들조차 이미 나온 결과를 단순히 사후 해석(post-explanation)하는 수준이거나 제안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즉, Godbey & Graefe, 1991; Long & Perdue, 1990; Leones, et al., 1998). 국내의 경우 고동우(2003) 및 고동우·부소영(2001)은 기존 연구들이 제안하거나 암시하였던 기제적 측면에 주의하여 축제장 지출 행동의 기제를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지출 현상의 난맥을 풀어보기 위하여 여행거리, 체류시간, 축제장 체험 수준 등 몇몇 잠재변수들의 지출효과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던 고동우(2003)는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실패하였다. 지출행동은 너무 복잡한 조건들로 이루어져 있어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결론지었음을 뿐이다(p.36).

결국, 축제 현장에서 지출행동은 방문자 개인의 특성 및 축제장의 구조적 특징 그리고 축제 체험의 종류 및 수준 등에 의해 달라질 것이라는 정도의 가정이 가능할 뿐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들 여러 변수가 어떻게, 왜 관련되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 명쾌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심지어 대부분의 연구에서 지출의 선행 변수로 거의 공통적으로 가정하였던 소득수준은 그것이 늘어나야 가처분소득도 늘 어날 것이고, 그래야만 지출의 가능성도 클 것이라는 다분히 상식적인 경제 논리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들은 이러한 상식적 논리조차 일관적으로 지지해주지 못하고 있다.

2. 거주지(여행거리)의 지출효과 기제

지금까지 알려진 지출행동의 논리적 기제는 경제적 측면의 상식논리 외에도 몇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고동우·부소영(2001)은 경험적으로 일관된 지지를 얻지는 못했지만 지출행동의 논리적 근거로서 최소한 두 가지의 심리적 기제 모형이 추론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하나는 여행비용 혹은 투자에 대한 심리적 보상의 기제이며, 다른 하나는 일상탈출의 경험에 의한 충동적 구매 가능성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기제적 가설의 논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기제에 대한 설명은 Leones 등(1998)의 연구에서 발견된다. 가령, 사람들은 경제적 동물이기 때문에 구매 상황에서 자신이 투자한 비용을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존재한다. 여행 장면이라면 어떤 목적지까지 가지 위하여 들이는 모든 투자 비용을 그 목적지에서 보상받으려고 할 것이다. 축제의 경우, 거주지에서 축제장까지 가는 여행거리, 시간, 여행비용은 심리적 투자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투자가 많을수록 축제장에서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러한 노력은 축제장내 체류시간의 증가를 유도하며, 결국 지출 가능성도 그 만큼 늘어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Leones 등(1998)은 자연관광자(생태관광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관광지의 150마일 이내 거주자들보다 150마일 밖의 거주 방문자들이 관광소비 지출을 많이 한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두 번째 기제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Godbey & Graefe(1991) 및 Long & Perdue(1990)의 결과 해석에서 찾을 수 있다. 관광지나 축제장은 여가 장면이며, 여가상황은 일상 생활의 환경과 다르다는 점에서 충동구매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이 기본 가정이다. 일상장면에서 소비자들은 대개 합리적인 구매를 한다. 이러한

가정은 경제학의 기본전제이기도 하거니와 정보 처리적 관점의 의사결정 패러다임에서도 가정된다. 이러한 가정은 일상장면과 같이 친숙한 환경에서 합리적 행동 즉, 긴축 구매의 가능성이 있지만 축제장과 같은 환경에서는 탈일상적(脫日常的) 소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이성보다는 감정에 이끌리는 의사결정의 가능성이 그 만큼 커진다는 것이며 지출 수준이 늘어난다고 본다. 이러한 논리와 관련하여 Godbey & Graefe(1991)는 스포츠 관광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관광지에 더 많이 노출되어 그 환경에 익숙해진 재방문자보다 처음방문자가 더 많은 소비지출을 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재방문자들은 신기성 체험(novelty experience) 수준이 줄어든다는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탈일상적 체험 혹은 충동구매의 가능성은 방문경험만이 아니라 여행거리 혹은 거주지의 잠재적 효과를 설명하는데도 유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축제장 환경에 대한 친숙성은 타지역 출신 방문자보다 지역주민에게서 더 클 것이며, 따라서 여행거리가 짧을수록 충동구매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여행거리가 멀수록 축제장내 지출행동의 가능성은 증가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Long & Perdue(1990)의 경우 여행거리가 멀수록 지출액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상과 결과는 다른 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의 축제장을 대상으로 지출행동을 연구하였던 고동우 등(고동우, 2003; 고동우·부소영, 2001)은 다소 복잡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 두 연구에서 모두 가정하였던 체류시간의 매개 효과(즉, 여행거리→체류시간→지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제주도 섬문화 축제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고동우·부소영(2001)의 연구에서는 거주지와 지출액 사이의 유의미하지만 작은 크기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였고, 이천도자기축제와 안동 탈춤축제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였던 고동우(2003)의 연구에서는 지출액에 대한 “거주지 x 여행목적”이라는 상호작용 효과가 발견되었으며 거주지의 단순 직접효과는 없었다. 결국, 여행거리를 반영하는 거주지 변수가 지출액의 규모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앞에서 매개변수로 가정하였던 체류시간의 효과는 있었으나 체류시간이 여행거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미 언급하였던 것처럼 기획축제가 관광 상품으로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면 방문자의 여행거리를 반영하는 거주지 변수는 중요하다. 지역주민 방문자보다는 타지역 방문자들의 지출행동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외국인 방문자들의 지출행동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타지역방문자가 적고 그들의 지출행동이 유도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경제적 측면에서는 실패한 기획이거나 동네 잔치에 머무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국인 방문자의 지출행동을 탐구한 연구가 고동우(2003)의 사례에 불과하고 그나마 소수의 외국인 응답자만이 조사되었음을 감안하면, 국내 유수의 축제를 대상으로 지역주민, 타지역 주민 및 외국인 방문자의 지출행동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인 방문자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관광을 온 사람들을 구분하여 조사한다면, 지출행동에 대한 문화적 배경의 영향과 여행거리의 효과를 동시에 확인할 수도 있다.

3. 지출행동의 지수들

기존 연구들에서 발견 가능한 한 가지 특징은 관광객 혹은 축제 방문자의 지출행동 중 지출목록을 묘사하는 경우와 더불어 지출액이 주요 종속변수로 고려된다는 점이다(고동우·부소영, 2001; 이희찬, 2002; Agarwal & Yochum, 1999; Henthorne, 2000; Leones, et al., 1998; Long & Perdue, 1990; Mok & Iverson, 2000). 하나의 축제장에서 어느 정도의 지출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수 설정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지출행동을 탐구함에 있어 지출액과 지출목록은 가능한 여러 종류의 종속변수 중 일부에 불과할 수 있다.

특히, 이미 언급한 심리적 투자에 대한 보상 기제나 충동구매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출액 자체도 중요하지만 방문자의 여행 예산이나 축제 비용 예산 등은 실제 지출액의 규모가 지니는 의미를 평가하

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고동우(2003)는 이러한 논리에 입각하여 축제 지출액을 방문자의 여행예산과 축제예산을 준거로 지출액의 상대적 비율을 지수로 추출하여 종속변수로 다루었다. 연구 결과와 관계 없이 이러한 시도는 관광 및 축제 장면에서 지출행동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지출액의 규모가 사전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합리적 의사 결정에 의한 구매행동의 가능성보다는 충동 구매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행예산이나 축제 방문예산 등은 그 자체로서 여행 비용에 대한 방문자 자신의 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여행비용이나 축제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고려하면 미리 예산을 크게 산정할 것이고, 심리적 보상 원리에 의해 실제 지출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축제장과 같이 새로운 환경 조건에서 합리적 구매보다는 충동적 구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예산을 초과하여 소비 지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고동우(2003)가 제시한 지출 행동의 “예산 대비 지출액”이라는 비율지수는 타당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고동우(2003)는 ‘지출액’ 외에도 ‘여행예산대비 지출액’ 및 ‘축제예산대비 지출액’이라는 새로운 지출 지수를 설정하여, 종속변수별로 서로 다른 회귀모형을 얻었으나(표3, 표5) 세 가지 종속변수별로 예연구조가 왜 다른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사실 예산대비 지출액 비율이 지출행동에 대한 새로운 결과 변수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은 타당해 보이지만, 예산대비 지출 비율이 거주지나 국적 같은 변수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이론적으로 추론하기란 쉽지 않다.

한 가지 가능한 논리는 여행거리가 멀수록 여행비용이 많이 들것이기 때문에 예산도 증가할 것이고, 예산이 증가하면 지출액도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경우 지출비율은 증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율로 처리되는 지수는 지출규모와 예산 모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심리적 보상의 기제는 예산과 지출의 정적인 상호 직선적 관계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예산초과 지출가능성과는 관계가 없을 수 있다. 반면, 다른 기제인 충동구매 가능성은 축제 장면이 일상을 벗어난 새로운 여가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바, 예산 대비 지출액 비율을 예측하는데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다. 멀리서 방문한 사람일수록 축제 장면은 상대적으로 더 여가 상황으로 인식될 것이고 따라서 충동구매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가능성은 지역주민 방문자보다 타지역 출신 방문자에게서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 가능하다.

이러한 논리가 타당하지만 지출액을 예산에 직접 비교하여 비율 지수화 하는 방법은 한 가지 한계가 있다. 비율 지수는 예산 초과 여부를 알려 줄 수 있지만 실제 지출 규모의 가치를 반영하지는 못할 것이다. 예산을 준거로 하여 지출을 비교하는 것이 옳겠지만 비율 대신 감산(減算) 방식으로 지수화 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예산-지출액” 방식으로 감산지수를 만들면 예산 초과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 초과 지출의 규모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출액, 예산대비 지출비율 및 예산대비 지출액 등을 모두 고려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4. 연구문제

이상의 논의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여행거리를 반영하는 거주지의 조건에 따라 축제방문자의 지출행동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할 수 있다.

연구문제1. 여행비용에 대한 심리적 보상의 원리에 따르면, 축제장 지출액 규모는 여행거리가 멀수록 증가할 것이다. 여기서는 지역주민 방문자, 타지역 방문자(관광객), 국내거주 외국인(관광객), 외국거주 외국인의 지출액 규모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할 것이다. 외국거주 외국인이 가장 큰 지출액 수준을 보일 것이며, 타지역 내국인 방문자와 국내 거주 외국인 방문자가 중간 수준, 그리고 지역 주민 방문자들이 가장 적은 지출을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연구문제2. 충동구매 가능성의 논리에 따르면, 여행거리가 멀수록 여행 및 축제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것이다. 그 가능성은 지역 주민 방문자에 비해 멀리서 방문한 타지역 방문자와 외국인 방문자들에게서 높을 것이며, 특히 외국에서 방문한 외국인들에게서 가장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연구문제3. 축제장 지출행동은 축제장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고동우·부소영, 2001), 이러한 예상들이 축제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III. 연구 방법

1. 조사축제, 조사대상자 및 절차

구조적으로 다른 특징을 지닌 축제를 대상으로 지출행동을 비교하기 위하여 지역 및 주제가 분명히 다른 두 종류의 기획축제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2년 여름에 진행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과 2003년 봄에 진행된 춘천 국제마임축제의 방문자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두 축제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획하였으며, 국제적 수준의 축제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이벤트로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이들 축제는 매년 최우수 모범 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안동 페스티벌의 경우 2명의 조사요원이 행사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5일간 축제장 출구에서 매일 50명씩 총 250명을 조사하였다. 이중 외국인은 80명이었다. 그러나 행사 기간 계속되는 비 때문에 조사의 어려움이 있었다. 춘천 마임축제의 경우, 연구자와 보조원 4명이 축제장의 출구에서 축제기간인 4일간에 걸쳐 총 400명을 조사하였다. 총 조사 자료 중 불성실 응답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520명의 자료를 통계처리에 활용할 수 있었다.¹⁾

2. 측정변수 및 설문지

두 곳 축제장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총 3개로 구성된 동일한 구조였다. 다만 외국인을 조사하기 위한 영문본으로 구성하였다. 지시문을 포함하여 인구사회 통계적 변수, 여행거리(거주지), 여행예산, 축제참가예산, 축제장내 소비지출총액, 축제장 체류시간, 동일 축제 과거 방문경험(빈도), 여행목적, 여행동료, 월소득 수준 등을 포함하였다. 체류시간은 시간 단위로 측정하였고 월소득 수준은 '한 가정이 한달 동안 소득하는 정도'로 조작적 정의하였고, '만원' 혹은 '달러' 단위로 측정하였다. 여행목적 변수는 여행목적의 순수성을 의

1) 이들 두 축제 외에도 2002년 가을에 개최된 "이천도자기 축제" 방문자와 2003년 봄에 있었던 "경주 술과 떡 축제" 방문자를 각각 500명과 400명 씩 조사하였다. 그러나 이들 축제를 찾는 외국인 방문자는 거의 발견할 수 없었으며 조사에 응하는 외국인도 없었다. 따라서 국제비교라는 본 연구의 취지에 맞지 않아 제외하였다.

미하며, '축제에 참가하게 된 것을 현재 여행의 몇 번째 목적으로 지각하는지'로 측정하였다(순수, 검목적, 우연방문 중 택1). 여행거리는 거주지로 측정하여 지역 주민과 타지역 방문자 및 외국인으로 구분하였다. 축제 참가경험은 과거 "축제"를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여행예산에 대한 질문은 "축제방문을 포함한 이번 여행을 위하여 귀하는 얼마 정도의 예산을 준비하셨습니까?"라고 물었으며, 축제예산은 "이곳 축제장을 방문하기 위하여 귀하가 준비한 예산은 얼마입니까?"라고 물었다. 두 질문 모두 개방형으로 이루어졌으며 "만원"혹은 "달러" 단위로 응답하도록 유도하였다. 종속변수로 처리되는 소비 지출액 변수는 '축제장 입장 후 머무르는 동안 소비자가 지출하는 금액'(원 또는 달러)으로 조작적 정의하여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예산초과지출의 정도는 앞에서 측정한 두 가지 형태의 예산을 각각 준거로 하여 소비지출총액의 비율을 계산해 내는 방법과 예산에서 지출액을 감산하는 두가지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따라서 예산초과지출의 정도는 모두 4 종류였으며, 각각 축제장 "지출액/여행예산", "지출액/축제예산", "여행예산-지출액", "축제예산-지출액"이었다. 인구통계적 변수로 나이, 결혼여부, 자녀수, 학력수준 등을 측정하였다. 모든 자료는 SPSS win.11.0 판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IV.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기술적 특징

방문자의 응답 자료는 인구통계적 특징에 따라 비교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1>은 두 종류 축제별 응답자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분석결과, 특정변수별로 두 가지 축제가 유사한 부분도 있었고 다른 부분도 있었다. 여행거리를 반영하는 거주지 변수의 경우 안동축제는 상대적으로 타지역(즉, 경북지역 외) 출신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춘천축제는 타지역 출신이 많았다. 학력에서 두 축제 방문자는 대졸이상의 고학력자가 많았다. 직업에서도 유사하였다. 두 축제 모두 학생이 가장 많은 공통점이 있었다. 축제 방문이 여행의 순수한 목적인지를 의미하는 여행목적 변수는 두 축제에서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두 축제 모두 순수축제 참가자가 가장 많았다. 성별의 경우 여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결혼상태는 두 축제에서 모두 미혼자가 더 많았다. 이혼이나 사별 등 기타 응답자도 소수 있었다. 이용교통수단의 경우 두 가지 축제 모두 다양한 방법으로 축제장을 방문한 것을 알 수 있다. 여행 동료의 경우 두 가지 축제 자료에서 비슷한 패턴을 보였는데 친구 비율이 가장 많았고 가족 및 친척 동반 참가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외국인의 경우 안동축제가 춘천축제 모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70%이상이었다. 안동축제는 국내거주 캐나다인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춘천축제는 자국에 거주하는 유럽인 관광객이 많았다. 춘천마임축제는 상대적으로 예술적 특징을 강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특징은 두 축제의 구조적 차이를 반영한다(<표 1>주 참조).

결국 두 축제의 방문자들의 인구 통계적 특징은 여행거리, 여행동료를 제외하면 안동축제 및 춘천축제가 유사한 양상을 띠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통계적 특징 비교와 더불어 본 연구의 주요 관심주제인 지출행동의 특징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전통적으로 지출의 전제조건으로 고려되었던 소득수준과 더불어 예산, 체류시간 및 축제장내 지출액 등을 비교하였다. 나아가 이론 고찰에서 새롭게 고려하였던 예산비교 지출액 지수를 계산하여 두 가지 축제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표2>에 제시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징(N=520)

변수		안동측제(193명)	춘천측제(327명)
거주지	지역주민	93	100
	타지역	25	149
	국내외국인	58	51
	관광외국인	16	24
여행목적	순수목적참가	116	218
	겸목적방문	33	45
	우연방문	40	53
성별	남	79	159
	여	114	168
결혼유무	미혼	132	191
	기혼	57	129
	기타	4	5
학력	중졸이하	14	4
	고졸	25	37
	대학재학	60	91
	대학졸	77	156
	대학원졸이상	17	36
직업	자영업	15	26
	사무직	12	40
	교육직	62	51
	생산직	1	2
	공무원	9	18
	학생	66	87
	기타	27	94
	이용교통	자가용운전	29
자가용동승	40	91	
여행동료	버스	62	52
	철도	14	62
	기타	48	38
	가족/친척	49	98
여행동료	친구	108	122
	연인	14	28
	친목단체	3	21
	혼자서	9	13
	기타	10	38
나이(t=2.46, p<.05)	평균(sd.)	29.27세(11.8)	31.5세(8.8)
동료수(t=.26, n.s.)	평균(sd.)	6.7명(10.1)	6.45명(9.8)

주: 일부 변수의 무응답 자료 있음.

외국인 방문자의 국적: [안동측제] 국내거주 미국인 16, 유럽인 10, 캐나다 32 명이고, 자국거주미국인 8, 유럽인 8 명 [춘천측제] 국내거주 미국인 12, 유럽인 18, 캐나다인 6, 기타 외국인 15명이고, 자국거주 유럽인 21, 캐나다인 3 명.

〈표 2〉 지출관련 변수의 축제별 평균(표준편차) 비교(N=520)

변 수(단위)	안동탈춤축제	춘천마임축제	t값
여행일수(일)	2.89(9.02)	1.78(.90)	1.79n.s.
참가경험(회)	1.64(1.0)	1.44(1.05)	2.13*
체류시간(시간)	3.23(2.0)	5.29(6.5)	-4.22***
월소득수준(만원)	455(798)	403(725)	.75n.s.
축제예산(만원)	7.17(10.12)	10.4(14.65)	-2.71**
여행예산(만원)	24.85(57.62)	14.84(17.18)	2.76**
축제지출액(만원)	3.26(2.67)	4.46(4.82)	-3.17**
지출/여행예산	.43(.54)	.51(.67)	-1.46n.s.
지출/축제예산	.66(.66)	.69(.77)	-.55n.s.
지출 - 여행예산	-21.02(57.2)	-10.38(16.2)	-3.16**
지출 - 축제예산	-3.90(10.2)	-5.95(13.0)	1.87n.s.

주: 각 변수의 결측치는 해당축제 방문자의 거주지별 평균치로 대체하여 처리하였음.

* p<.05, ** p<.01, *** p<.001. n.s. = non-significant.

〈표 2〉에서 보면, 안동축제 방문자의 경우 2.89일의 평균 여행일정으로서 춘천축제 방문자의 여행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동일 축제의 방문 경험은 춘천 국제마임축제 방문자들이 유의한 수준에서 낮게 나타났으나 두 축제 방문자 모두 약 1-2회의 방문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축제장내 체류시간은 춘천축제방문자가 안동축제 방문자에 비해 더 오래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축제 방문자는 3시간 10분을 체류하는 반면, 춘천축제의 경우 5시간 20분정도를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의 경우 안동축제 방문자와 춘천축제 방문자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축제예산, 지출규모, 예산대비 지출지수는 대체적으로 춘천축제 방문자가 더 높았다.

축제장 지출액은 안동축제에 비해 춘천축제에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두 종류의 예산대비 지출액 비율은 공통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 축제 모두 예산에 초과하지 않는 지출액 수준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안동축제방문자에 비해 춘천축제 방문자가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으나 축제예산을 대비한 지출 지수는 두 축제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하겠다.

2. 축제지출지수의 내외국인 비교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과 춘천 국제마임축제의 자료를 합하여 연구문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5가지 지출지수를 출신지역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두 축제 자료를 합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여행목적이 가외변수(extraneous)로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공변인(covariable)으로 처리하였으며, 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거주지역을 동시에 고려하면 각 셀(cell)의 사례수가 너무 적어서 현재 거주지로만 분류하였다(공분산분석). 사후분석을 통하여 어떤 방문자 집단이 가장 큰 지출지수를 보이는지를 확인하였다.

〈표 3〉 거주지특성에 따른 지출지수(표준오차) 비교(ANCOVA)

변 수 (명)	지역주민 a (193)	타지역민 b (173)	국내외국인 c (109)	외래외국인 d (40)	F값	사후비교 (LSD)
지출액 (만원)	3.34 (.29)	4.11 (.30)	3.53 (.39)	8.83 (.66)	20.15***	a<b=c<d
지출액/여행예산	.66 (.05)	.44 (.05)	.32 (.06)	.31 (.10)	8.12***	a>b>c=d
지출액/축제예산	.84 (.05)	.71 (.05)	.45 (.07)	.41 (.11)	8.27***	a>b>c=d
지출액-여행예산	-7.50 (1.64)	-9.42 (1.72)	-17.78 (2.24)	-37.55 (3.73)	21.28***	a,b>c>d
지출액-축제예산	-3.34 (.88)	-4.05 (.92)	-9.37 (1.20)	-11.34 (2.00)	9.13***	a,b>c,d

주: 여행목적별(공변인) 각 지출지수의 F값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음(N=505).
*** p<.001.

〈표 3〉에서 보면, 축제장 지출을 가장 많이 하는 집단은 내국인보다 외국인들이다. 내국인들은 거주지 특성에 따른 지출액의 차이가 없었으나 외국인의 경우 특히 외래 방문자의 지출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연구문제1의 예상인 여행거리의 일관된 지출효과는 지지되고 있다. 즉, 내국인이나 외국인 모두 원거리 여행자가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이다.

예산과 비교된 지출 지수의 경우(연구문제2), 네 집단 모두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행동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여행예산이나 축제예산에 근접하는 수준의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원거리 여행자들은 예산에 훨씬 못 미치는 지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문제2에서 예상했던 논리와 반대 방향의 패턴이다. 다시 말해 외국인이나 원거리 방문자일수록 예산대비 지출 수준이 적어지는 경향을 나타내며, 근거리 방문자일수록 예산에 근접한 지출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러한 결과는 네가지 예산대비 지출지수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미 보았던 지출액 규모의 변이 경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행목적 변수를 공변인으로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출행동양상이 일관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여행거리나 국적이 중요한 예언변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논제에 맞추어 축제 방문자의 국적별로 지출 지수를 비교할 필요가 있었다. 다만 외국인의 사례수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 비교는 해석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내국인 방문자는 지역주민과 타지역민으로 구분하고, 외국인은 적은 사례수를 고려하여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고향이 어디냐에 따라 분류하였다. 외국 국적은 미국, 캐나다, 유럽, 기타 외국으로 분류되었다. 다섯 가지 지출지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국적에 따른 지출지수(표준오차) 비교

변 수 (명)	지역주민 (193)	타지역민 (173)	미국인 (36)	유럽인 (57)	캐나다인 (41)	기타외국 (15)	F값
지출액 (만원)	3.34 (.29)	4.11 (.30)	4.07 (.61)	7.10 (1.15)	2.33 (.38)	4.37 (.86)	9.39***
지출액/여행예산	.66 (.05)	.44 (.05)	.35 (.07)	.38 (.05)	.20 (.03)	.23 (.05)	5.84***
지출액/축제예산	.84 (.05)	.71 (.05)	.55 (.07)	.44 (.03)	.37 (.06)	.27 (.05)	6.05***
지출액-여행예산	-7.50 (1.64)	-9.42 (1.72)	-23.6 (4.77)	-44.1 (12.2)	-18.0 (3.34)	-15.9 (1.80)	10.44***
지출액-축제예산	-3.34 (.88)	-4.05 (.92)	-5.02 (.93)	-9.25 (1.37)	-11.2 (3.13)	-12.2 (1.32)	5.82***

주: 여행목적별(공변인) 각 지출지수의 F값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음.

*** p<.001.

<표 4>에서 보면 축제장 지출액 규모는 유럽인이 상대적으로 크고 캐나다인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인이나 기타 외국인은 내국인방문자와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예산대비 지출지수에 해당되는 나머지 4개 변수에서는 내국인 방문자들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나머지 집단에서는 비슷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이 대체적으로 건축 지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문제3을 확인하기 위하여 축제 종류별 지출양상이 다르게 나타나지를 분석하였다. 지출액 수준과 예산대비 지출액 수준 4개 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축제종류(2종)와 방문자 거주지 특징(4수준: 지역주민, 타지역방문자, 국내거주 외국인, 자국거주 외국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표 5> 축제종류 및 거주지특성별 지출지수(표준오차) 비교(MANOVA)

변 수 (명)		지출액 (만원단위)	지출액 / 여행예산	지출액 / 축제예산	지출액 - 축제예산	지출액 - 여행예산
지역주민	안동축제 (93)	3.06(.41)	.53(.06)	.77(.07)	-2.05(1.24)	-8.33(2.12)
	춘천축제 (100)	3.61(.41)	.80(.06)	.90(.07)	-4.60(1.24)	-6.92(2.18)
타지역민	안동축제 (25)	3.27(.79)	.36(.12)	.49(.14)	-4.33(2.40)	-13.6(4.22)
	춘천축제 (148)	4.26(.33)	.45(.05)	.74(.06)	-4.00(1.00)	-8.63(1.76)
국내 외국인	안동축제 (58)	2.92(.55)	.39(.09)	.54(.10)	-8.20(1.67)	-16.1(2.95)
	춘천축제 (51)	4.19(.55)	.26(.09)	.37(.10)	-10.57(1.68)	-19.1(2.97)
외래 외국인	안동축제 (16)	6.97(1.13)	.14(.18)	.57(.20)	-4.63(3.46)	-77.3(6.10)
	춘천축제 (24)	9.75(.80)	.39(.13)	.33(.14)	-4.00(2.44)	-17.9(4.29)
F값	여행목적 a	.10	.12	3.50	.10	.02
	거주지	15.27***	8.77***	7.63***	7.09***	34.6***
	축제종류	8.67***	2.53	.01	6.46*	38.4***
	축제x거주지	.80	2.49	2.05	.47	19.52***

주: a. 여행목적 변수는 공변인으로 처리하였음. N=505.

* p<.05, ** p<.01, *** p<.001

축제장 지출액을 포함한 5가지 지출지수의 크기를 비교한 <표 5>의 결과에서, 공변인으로 처리한 여행 목적 별 지출지수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종속변수에서 축제와 거주지의 상호작용(2x4)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예외적으로 “지출액-여행예산”지수에서는 상호작용 효과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내국인방문자에 비해 여행예산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지출하였으나 특히 안동축제를 찾은 외래 외국인 방문자들에게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춘천축제를 찾은 외래 외국인이나 국내거주 외국인은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타지역 출신 내국인 방문자들은 특히 안동축제에서 상대적으로 여행예산대비 지출수준이 더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출액-여행예산”지수가 예외적이긴 하나, 여행거리가 지출행동이 미치는 영향이 축제종류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며, 연구문제 3의 예상이 타당하지 않음을 뜻한다.

결국, 지출액 수준이나 예산대비 지출지수는 여행거리와 축제종류에 의해 각각 단순 주효과(simple main effect)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원거리 여행자일수록 지출액이 많아지고 예산대비 지출수준이 낮아지며, 안동축제보다는 춘천축제에서 대체적으로 더 많은 지출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비교적 일관적이다.

3. 추가분석: 방문자의 예산에 따른 지출액 변화

이론적 고찰에서 예산 범위는 지출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예상하였으며 그 관계성은 내외국인 방문자

가 다른 패턴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 종류의 예산 변수 즉, 축제예산과 여행예산을 독립변수로 하고 지출액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나아가 축제예산과 여행예산 중 어느 것이 영향력이 더 큰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더불어서 소득수준은 여행경비 예산을 결정하는 선행조건이 될 수 있고, 체류시간은 축제장내 체험 수준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고동우·부소영, 2001), 이들 두 가외변수의 영향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가외변수를 포함한 상태에서 각 방문자 특성별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다만 외국인 방문자의 사례수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한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표 6> 축제지출액에 대한 다중회귀분석(enter 방식)

예언변수	집단별 종속변수(축제장 지출액)					
	지역주민 (n=193)		타지역방문자 (n=173)		외국인방문자 (n=149)	
	β	R^2	β	R^2	β	R^2
체류시간	.10n.s.		.108n.s.		.08n.s.	
월소득수준	-.04n.s.	.02n.s.	.03n.s.	.247***	-.09n.s.	.408***
여행예산	.09n.s.		.23*		.08n.s.	
축제예산	-.00n.s.		.29**		.60***	

주: 모든 조건에서 투입변수는 소득수준, 체류시간, 여행예산, 축제예산이었음

* $p < .05$, ** $p < .01$, *** $p < .001$, n.s.: non-significant.

<표 6>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축제방문자의 지출행동에서 공통적인 현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축제예산의 설명력은 원거리 여행자일수록 증가하고 있다. 즉, 여행거리와 문화의 이질성이 가장 큰 외국인 방문자 자료에서 축제예산의 설명력은 가장 크며, 근거리 여행자인 지역주민 방문자 자료에서 그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소득수준이나 체류시간은 어떤 집단에서도 지출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가 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예산이 지출행동에 미치는 효과의 기제가 방문거리가 멀수록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V. 결론 및 논의

축제를 포함한 관광 장면에서 소비지출의 문제를 심리적 기제의 측면에서 다룬 경우는 드물었다. 본 연구는 여행거리 등의 비용에 대한 심리적 보상의 원리와 일상탈출의 충동구매 가능성을 기제적 논리로 설정하여 관광축제 방문자의 지출행동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여행거리와 문화적 이질성을 고려하여 축제방문자를 지역주민, 타지역주민 방문자 그리고 외국인(국내거주자와 외래 방문자)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축제장 지출 행동을 비교하였다. 또한 외국인의 국적을 구분하여, 특히 지출액만이 아니라 예산을 준거로 하는 지출지수 변수를 새롭게 구성하여 방문자별 지출 지수를 비교하였으며, 축제간 차이를 고려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축제별로 다른 특징이 발견되었으며 따라서 지출행동을 분석하는 경우 축제의 종류를 일종의 조절변수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최소한 축제장의 지출행동을 분석함에 있어 하나의 일반화된 연구모형이나 심리적 기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개별 축제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의 핵심 문제인 내외국인 방문자별 지출지수를 비교한 <표 3>과 <표 5>의 다변량 분석 결과는 축제장 지출액의 수준이 방문자 종류와 축제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우선, 근거리 방문자보다 원거리 방문자들이 더 많은 지출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특히 연구문제2와 3의 예산을 고려하여 해석하면, 지출액 규모는 원거리 여행자일수록 증가하였으나 예산대비 지출수준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

다. 이는 원거리 여행자일수록 여행예산과 축제 예산을 크게 잡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이해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국적별 비교를 한 <표 4>의 경우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에 유의한 수준에서 건축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럽인과 구미인들이 한국인에 비해 더 합리적인 지출을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서구인과 한국인의 문화적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결국 이론적 배경에서 예상하였던 여행거리의 지출효과는 타당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충동구매 가능성을 예산에 대비한 지출수준으로 가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합리적 구매라는 것이 반드시 예산에 맞는 지출행동을 의미하는지의 여부는 “여행”과 같은 각성 수준의 여가 행동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원거리 여행자일수록 미리 예산을 크게 산정함으로써 자신이 겪을지도 모르는 미지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으며 나아가 충동구매의 가능성까지도 미리 염두에 둘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표 6>의 중다회귀분석 결과에서 추론할 수 있다. 지역주민보다는 원거리 여행자 집단에서 축제예산이 지출액규모를 설명하는 예측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논의는 관광자의 충동구매 가능성에 의한 지출 행동이 단순히 지출액 수준에서 확인할 수 없음을 뜻한다. 만약 지출품목과 같은 측면에서 여행거리의 지출 효과를 검증한다면 충동 구매의 여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는 향후 연구에 맡겨야 한다.

안동축제에 비해 춘천축제 방문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여행거리를 반영하는 거주지나 국적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이는 결국 축제의 특성에 따라 지출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안동축제보다는 춘천축제가 더 나은 지출유도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현상은 축제의 특징을 고려할 때 단서를 찾을 수도 있다. 예컨대 안동국제탈춤축제는 주제 면에서 한국의 토속적 문화를 지향하는 한편 춘천 국제마임축제는 보다 현대적이고 서구적인 공연 이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형극이라는 단일 주제보다는 다양한 공연들(마임, 현대 발레, 진보 음악 공연, 실험극 등)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춘천축제의 또 다른 특징은 축제장이 고립 공간인 강 중간에 있는 고슴도치 섬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도시 공간에서 이루어진 다른 축제들과 다를 뿐 아니라 입장료를 받는다는 점, 그리고 축제장인 섬 내부가 많은 나무와 잔디밭으로 꾸며져 있어서 심리적인 여유를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거리를 지나가듯 경험하여야 하는 다른 축제에 비하여 춘천 축제는 특히 방문자들에게 즐거움과 안식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입장료와 같은 비용은 원거리 여행자들에게 체험을 통한 보상심리를 유도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춘천 축제가 특히 방문자들에게 매력 있는 요소를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논의로부터 축제장 지출 행동과 관련하여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축제장 지출은 구조적 특징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둘째, 외국인이나 원거리 여행자는 축제장내 지출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개인소득 수준이나 체류시간은 지출의 직접적인 선행변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넷째, 근거리 방문자의 경우 축제예산은 여행예산과 거의 다르지 않겠지만 원거리 여행자의 경우 축제예산은 여행예산의 일부가 될 것이며, 이런 경우 축제에 참가하기 위한 예산을 따로 구체적으로 산정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외국인과 같은 특히 원거리 방문자에게서 축제 예산은 지출행동의 중요한 선행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외국인 방문자들이 소비지출에 있어서 더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원거리 여행 때문에 더 많은 충동구매를 하는지는 결론 내리기 어렵다.

이러한 결과의 논의는 이론적 측면과 실제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기획축제 방문자의 지출 행동의 기제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던 연구가 적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방문자의 여행거리를 고려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의 축제지출을 다루었던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축제 지출 연구의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둘째, 지출 행동이 축제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는 향후 축제 기획에 있어서 목표시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준거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동축제 보다는 춘천축제가 외국인 방문자의 지출 가능성을 유도하는 구조로 이루어

졌다고 결론 내릴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결론은 국제 축제를 지향하는 안동축제의 경우 개선의 이유를 제공한다. 셋째,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관광기획 축제를 진단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며, 나아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 지출이 야기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기획축제의 구조를 어떻게 개선하는데 필요한 방향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궁극적으로 거의 모든 기획 축제장 기획에 도움을 주는 것이며 따라서 축제장의 개선 방향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구체적이고 일반화된 결론을 내리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첫째, 국제비교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방문한 외국인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조사 자료의 수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국적의 축제 방문자를 비교하지 못하였다. 냉정하게 말하여 본 조사에서 외국인 자료는 거의 전수조사에 가까운 것이었지만(외국인으로 보이는 거의 모든 방문자를 조사하였음) 내국인 방문자와 비교하여 균형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러한 자료의 편향이 분석결과를 왜곡했을 가능성은 인정하여야 하며, 따라서 해석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사 대상 축제가 한정되어 있어서 다른 종류를 망라하지 못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특히 축제 종류가 지출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조절 변수가 된다는 결과는 향후 여러 축제를 대상으로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측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이론적 근거로 제시하였던 충동구매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도 인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여행에 투자한 심리적 비용과 보상 추구로서 축제 체험이 정확히 규정되고 측정되어야 하며, 충동 구매에 대한 정확한 측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와 한계들은 향후 많은 연구들이 해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기획축제 방문자의 소비행동을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여가 및 관광의 국제비교 연구의 단초가 될 수 있다.

K C I

참고문헌

- 고동우(2003). 관광축제 방문자의 지출행동 비교. 『관광레저연구』, 14(2): 25-38.
- 고동우·부소영(2001). 기획축제 참가자의 소비지출 기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 소비자 광고』, 2(2): 61-79.
- 김정은·김남조(2000). 메가이벤트 방문자의 지출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학회 47차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38-247.
- 이희찬(2002). 축제참가자의 관광지출 결정요인. 『관광학연구』, 26(1): 31-46.
- Agarwal, V. B. & Yochum, G. R.(1999). Tourist Spending and Race of Visitors. *Journal of Travel Research*, 38(November): 173-176.
- Gitelson, R. J. & Crompton, J. L.(1984). Insights into the Repeat Vacation Phenomen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11: 199-217.
- Godbey, G. & Graefe, A.(1991). Repeat Tourism, Play, and Monetary Spending. *Annals of Tourism Research*, 18: 213-225.
- Henthorne, T. L.(2000). An Analysis of Expenditures by Cruise Ship Passengers in Jamaica. *Journal of Travel Research*, 38(February): 246-250.
- Lee, Choog-Ki(2000). A Comparative Study of Caucasian and Asian Visitors to a Cultural Expo in an Asian Setting. *Tourism Management*, 21: 169-176.
- Leones, J., Colby, B., & Crandall, K.(1998). Tracking Expenditures of the Elusive Nature Tourists of Southeastern Arizona. *Journal of Travel Research*, 36(Winter): 56-64
- Long, P. T. & Perdue, R. R.(1990). The Economic Impacts of Rural Festivals and Special Events: Assessing the Spatial Distribution of Expenditures. *Journal of Travel Research*, 28(4): 10-14.
- Mok, C. & Iverson, T.J.(2000). Expenditure-based Segmentation: Taiwanese Tourists to Guam. *Tourism Management*, 21: 299-305.
- Tideswell, C. & Faulkner B.(1999). Multidestination Travel Patterns of International Visitors to Queensland. *Journal of Travel Research*, 37(May): 364-374.

2003년 8월 25일 원고 접수
2004년 1월 19일 최종수정본 접수
3인 익명심사 특